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0주일
제27권 38호 (다해) 2007·8·19

[묵상]



어머니

살아오면서 귀한 것은 모두 내어주시고
더러운 것은 빨고 씻어 햇살에 말리시며
눈물로 길을 내어 한평생 흘러온 생애
하얗게 배랜 뼈를 모아
마침기도 올리시는.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방학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3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트라아 (4째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김철웅 베드로, 차마리아와 홍아오스딩, 황보금 마리아
	(생)민마르코, 박근태 아오스딩
주 일 낮 미사	(연)테니스 웨버, 황지엽 요셉, 박호준 마리아, 이현호 요한 김인영 베드로, 이영자 마리아, 김철웅 베드로, 강용길 라상옥, 박대수 나자로, 김영수 테레사, 황보금 마리아
	(생)송주소 미카엘 가정, 이종민 요셉, 김형미 테레사 김세종 안드레아, 최우성 아오스딩(첫돌), 장숙환 수산나 홍숙자 막달레나와 홍정자 테레사, 김종돈 스테파노 조운성 클라라 가정과 조테레사와 김로사, 전지연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예레미아서(Jeremiah) 38,4-6.8-10

화답송 ○어서 빨리 오시어 주여 나를
도우소서.<전례성가 86, 연중제20주일 C해>
○주님께 바라고 바랐더니만, 당신이 이 몸을
굽어보셨네. 부르짖는 내 소리를, 부르짖는
내소리를 들어주셨네.○
○죽음의 구렁에서 나를 꺼내 주시고, 진흙의
수렁에서 나를 꺼내 주셨네. 바위 위에 든든히 내
발을 세우시며 내 걸음 힘차게 해주셨네.○
○당신은 내 입으로 새로운 노래를, 우리
하느님께 송가를 부르게 하셨네. 많은 사람
보고는 두려워하며, 주님께 믿음을 갖게
되리라.○
○나는 가난하고 불쌍하오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돕고 구하시는 당신이오니, 내
주 하느님 더디 마옵소서.○

제 2독서 히브리서(Hebrews) 12,1-4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복음 루카(Luke) 12,49-53

영성체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196
봉헌	하늘의 태양은 못되더라도	255,241
성체	Prince of Peace, Power of Love	280,298
파견	너는 내 아들이라	211

2.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

오늘날이 비록 과학 시대라고는 하지만 경제 불황과 사회적 불안이 계속될 때면 인간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악의 유혹과 미신 행위, 그리고 사회 병리적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인지 '시한부 종말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미래에 대한 불안, 정신적 불안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올바른 삶에 대한 가치 기준도 흐려져서 물질, 명예, 쾌락 등에 집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이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운명론이나 집단적인 광신 행위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어떠한 중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루카 16.13)

▶ 올바른 삶의 기준

우리는 하루 동안에 수없이 많은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하느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등등, 알게 모르게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판단에는 기준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기준에 따라 판단하지만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신앙을 갖게 되면 신앙이 삶의 기준이 되고, 아울러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되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우리의 올바른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한 기준입니다. 이제 천주교는 우리에게 참된 인생관과 가치관을 심어 줄 것입니다.

▶ 신앙과 불신앙

“하느님을 믿으십시오.” 이 권유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자기의 삶을 의지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나 권력을 최고의 의지할 곳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최고야!” 하고 말하는 이들에게는 돈이 바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사정을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점쟁이가 차라리 더 믿을 만하다.” 하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결국 인간적인 실망과 좌절을 겪게 되고, 터무니없는 미신 행위와 잘못된 운명론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께 우리의 모든 것, 삶과 죽음까지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다는, 참으로 신앙인답게 살아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드린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평화와 기쁨, 참된 행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 출처:CBCK

<계속>

불과 평화

오늘날처럼 평화에 대한 갈망이 강한 때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루카 12.49.51)고 말씀하신다. 이라크, 중동,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종교가 세상에 증오와 파괴와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듯이 언제나 ‘부드러운 남자’는 아니셨음이 분명하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위선과 계략에 굴하거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예고하듯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루카 12.50)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세례”라는 말은 “불”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 불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증오의 불이 아니라, 거짓과 위선을 제거하여 올바르고 참된 것을 순수하게 구현하는 성령의 불이다.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르고자 하는 불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우리는 이 불 앞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루카 11.23)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묵시 3.16)고도 하셨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온도’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 올라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불은 아무런 식별 없이 무엇이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진리와 정의가 아닌 것은 이 불로 정화되어야 한다.

참된 평화는 결코 값싸게 얻어지지 않는다. 때로는 갈등을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가치이다. 그래서 피를 나눈 가족들 안에서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복음은 말하고 있다(루카 12.52-53). 진리와 자유가 없는 평화, 정의와 인권이 무시되는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다.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이를 위해 싸워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고통을 겪기도 한다. 예레미야 예언자라고 예루살렘의 파멸을 예언하고 싶었겠는가! 그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대가로 저수 동굴에 갇혀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된다(예레 38.4-6.8-10).

적당히 얻어낸 평화는 묘지의 고요함에 불과하다. 참된 평화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가치들이 무시되는 곳에서 결코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 주신 대로 하느님의 정의와 진리를 주장하면서도 견해를 달리하는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다. 참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함께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할 줄 알고 그에 따르는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줄 수 있다.

● 김영국 요셉 신부 · 서울대교구 청소년국장

이번 주 전례 봉사가

다음 주 전례 봉사가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이호미 엘리사벳	최숙 클라라	해설자	송주영 크리센시아	신덕래 테레사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박선규 라파엘	박진수 스테파노	오세원 아타나시오	제1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최영신 프란치스코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민솔기 로사리아	박해경 레나타	주일학교 아놀드 김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황지영 안젤라	주일학교 크리스티나 윤
제물봉헌자			카슨/하버 1.3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4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가정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
 -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해 주십시오.
 - ☞ 지난 주간 합계: 3,404단 ☞ 총 합계: 173,315단
- ◆ 백삼위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봉헌식 및 임명장 수여
 - 8월26일(주일), 오전 11시 낮미사 중
 - 대상: 협의회 회장단, 사목평의회, 운영위원회, 재무평의회, 특별위원회 소속 임원, 소공동체 분과 구역장과 반장, 제 단체 회장
 - ※ 위의 임원들은 전원 8월26일(주일) 11시 미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신자 대상 신앙 특강
 - 8월28일(화)~29일(수), 오후 7시30분, 성당
 - 제목: “쉐마, 이스라엘”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 강사: 이영목 안드레아 신부
- ◆ Saint Margaret Mary 본당 로미타 축제
 - 9월7일(금)~9일(주일), 25511 Eshelman Ave, Lomita
 - 게임, 다민족 음식, Rides, Live Entertainment & 맥주 코너
 - Raffle 티켓 판매: 1장당 \$1 ☎ 310-740-1502 김요한
- ◆ 소공동체 분과 구역장 회의
 - 8월21일(화), 오후 7시

◆ 주일학교 새학기 등록 시작합니다

- 등록기간: 8월25일(토)~ 9월23일(주일)
- 대상: 유치부(K)~ 12학년까지
- 등록비: 첫째아이 \$100, 둘째아이 \$80., 셋째아이 \$60
넷째/다섯째는 무료
- 등록장소/시간: 성전 동쪽 입구, 미사전, 후
- 9월23일 이후 등록시는 \$10 추가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7 성모승천반 세례를 축하합니다

- ◆ 세례식 :8월22일(수), 오후 7시30분 미사 중에
 - 라삼현 아우구스티노(토런스 남 4반)
 - 박주현 사무엘 & 신현정 루시아, 박준희 요한(토런스 남 3반)
 - 신정열 로사(토런스 서 2반)
 - 우영주 야고보(토런스 북 2반)
 - 전선미 스테파니아(토런스 서 2반)
 - 정와석 베드로(토런스 서 2반)
 - 홍윤정 엘리사벳, 이재운 요셉(토런스 서 1반)
 - 태수경 아네스(구역회)

※ 지난 6월 거행된 세례 및 첫 영성체 사진을 찾아가세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목요 교리반 개강

- 많은 분들이 하느님의 크신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인도합니다.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예비자 교리실

◆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교회의 미래인 주일학교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배워 가르치며 사랑해 줄 교리교사를 기다립니다.
- 대상: 교리교사를 희망하는 남녀 교우
- 문의: 청소년부장 김순희 모니카 ☎ 310-850-6253

◆ 여름철 건강관리 위한 침뜸 강의

- 8월19일/26일: 고혈압, 중풍예방, 부인병(갱년기 등)
- 강사: 권진열(피데스) ☎ 310-800-3592

◆ 성모회 기금마련 고추장 된장 판매

맛있는 된장과 고추장을 다음주 토요일특전미사(25일)와 26일 주일아침 미사와 낮미사후 판매합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 나누기) 봉사 담당 소공동체

- 8월 19일: 토런스 서 2반 (비빔밥 \$3.00)
- 8월 26일: 이경용 야고보 형제님께서 팔순 기념으로 주일 낮미사 후 점심(아침미사후엔 떡)을 제공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김기정	김병철	김연숙	김영미	김우용	김 욱
	김인열	김종렬	김찬구	노혜숙	문두현	문충한
	민소예	민찬기	방세훈	오호순	우영희	유인섭
	유희연	이귀분	이규형	이기성	이석호	이용식
	이일길	이재정	장수창	정규숙	정열모	조영희
	조화숙	주대중	최덕희	최의수	한금순	한윤진
	황지영	한길선례	박제이콥			
합계 : \$ 3,230						

미사헌금 : \$ 2,885

성전헌금	김기정	김연숙	김영미	김우용	김 욱	김인열
	김종렬	김찬구	문충한	민기남	민소예	민찬기
	방세훈	우영희	유희연	이귀분	이기성	이석호
	이재정	장수창	정규숙	조영희	조화숙	주대중
	최의수	한금순	황지영	한길선례	박제이콥	
합계 : \$2,060						

남가주 소식

◆ 가톨릭 신문 창간 80주년 기념 음악회

- 8월24일(금), 오후 7시30분, 성바실 천주교회 대성전
- 공연 연주자: 강무림(테너, 가톨릭음대 교수)
정트리오(제니정 피아노/엘렌정 바이올린/줄리정 첼로)
Jubilate 한인 가톨릭 성가 동호회
- 티켓: 5달러(본당 사무실에 있습니다.)
☎ 213-500-2554

◆ 워싱턴성당 한국성모자/순교자 부조상 봉헌식 참가단 모집

- 내용: 1) 2박3일-미사참석+워싱턴관광+추기경님과 만찬
2) 3박4일-미사참석+워싱턴관광+뉴욕관광
- 참가비: 1) 2박3일 \$899 2) 3박4일 \$1,049
- 출발일: 9월21일(금) 오전 9시 LAX 출발
- 신청 마감일: 8월20일
- 문의처: 성삼 한인천주교회
사목회장 박흥기 요한 (213)500-7897

◆ 오웬진 신부님과 함께하는 “제2차 가정성화 피정”

- 8월22일(수), 오전9시~오후10시
- St. Emydius 성당 내 강당 (Lynwood 꽃동네 맞은편)
10900 California Ave., Lynwood, CA 90262
- 참가비: 무료 (점심 각자 지참, 저녁 식사 제공)
- 연락처: 951-302-3400

◆ 제1차 남가주 청년 성령대회

- 8월24일(금) 오후7시~오후11시
8월25일(토) 오전9시~오후6시
- 장소: 백삼위 한인성당
- 초청강사: 문다윗 신부님
신상현(야고보 수사/꽃동네 예수형제회 원장)
- ☎ 본당 기도회 회장 또는 KCRM (310)650-9058

◆ 꽃동네 제 2차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피정

- 자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 9월 7일(금)~9일(주일), 오후 1시
- 대상: 60세 이상
- 장소: 테메쿨라 꽃동네 피정의 집
Kkottongnae
37885 Hwy. 79S. Temecula, CA
- 참가비: \$100
- 준비물: 침낭, 세면도구, 두꺼운 옷, 편안한 신
- 신청문의 ☎ 951-302-3400

이번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회, 가정의 날

오후 1시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배태임 안나 781-9199 8/10(금) 오후7시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8/26(일), 낮미사후, 성당
	3	한길선레 스펠라스티카 782-1025	한길선레 스펠라스티카 782-1025 8/10(금), 오후7시3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형제반 1째 수 오후7시, 성당 자매반 3째 수 오후7시, 성당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박동수 베드로 618-8499 8/11(토) 오후 7시
	2	이명순크리스티나 374-1572	홍선자 데레사 212-5509 8/18(토) 오후6시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김미성 미리암 798-6540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2	임진희 한나 720-7898	임한나 720-7898
	3	임형미 사비나 408-3835	임형미 사비나 408-3835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Club.cyworld.com/10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	박정희 마리아 715-2609	최미열 클라라 324-0735 8/10(금), 오후 7시
	2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차장)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최벨라멧다 213-718-0310 8/11(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755-4311 8/20(월)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홍정란 클라라 544-6290	홍정란 클라라 544-6290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숙희 유소사 544-4807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태우지 않는 불꽃처럼

‘십계’ (十戒, The Ten Commandments)라는 영화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영화 ‘십계’는 구약성서 출애굽기 전반부(1-20장)의 내용을 소재로 삼아 1956년 세실 감독과 올 브리너와 찰튼 헤스턴 출연으로 제작된 불후의 명작이다. 필자는 중학교를 다니던 1973년쯤에 단체관람으로 이 영화를 보았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십계’를 생각하면 스틸 만점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간다. 그 중에서 오늘 복음의 주제가 될 만한 ‘불’과 관련된 장면은 ‘불타는 가시덤불’ (탈출 3,2), ‘구름기둥과 불기둥’ (탈출 13,22),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 ‘불 속으로 내려오신 야훼’ (탈출 19,18) 등의 모습이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던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된다. 그 때 하느님 야훼의 말씀이 불덩이가 되어 암벽에다 계명을 하나씩 새기는 장면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 마치 불덩이가 나의 가슴속에 계명을 하나씩 새기는 것과도 같아 온 몸이 섬뜩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불’은 구약과 신약성서에 자주 등장하는 상징적 표현으로서 하느님의 현존과 세상의 심판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수께서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49절)라고 하심은 정의로운 하느님에 의한 세상 심판이 임박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고 계시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이미 보고 계신다. 어쩌면 그 날과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의 불이 타오르기 전에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셔야 한다. 예수님의 세례(洗禮)는 수난과 고통의 바다에 침례(浸禮)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 때, 불과 세례는 심판과 속죄, 정화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하느님의 불과 예수님의 세례, 하느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속죄, 그리고 하느님의 정화와 예수님의 구원의 시간이 다가와 눈앞에 펼쳐진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어떠한가? 마치 한 가정의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반대하여 갈라져 있듯이, 예수님을 두고 세상은 온통 갈등과 혼란에 빠져 있다. 허나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예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그분을 반대하여 등을 돌릴 것인지 말이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무관심이나 중립은 통하지 않는다. 요한도 묵시록에서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라리 네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너는 이렇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기만 하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묵시 3,15-16) 하고 말한다.

예수 편에 서기로 결정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예수를 선택한 것은 곧 불과 세례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원하시는 불이 자기 안에 타오르고 있어야 한다. 우리 안에 이 불이 타오르고 있다면 이는 예수님께 기쁨이다. 그렇다고 이 불이 자신을 태워버려서는 안 된다. 이 불은 자신을 태우기 위한 불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불꽃이 이는데도 타지 않는 떨기’ (탈출 3,2)와도 같은 것이다. 자신을 태우지 않고서 남을 위해 불꽃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불과 예수님의 세례를 향하여 준비와 기다림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으로 사는 것이며, 다시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공경하는 성인성녀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다. 그들은 하느님의 불에 의해 자신과 세상을 향한 크나큰 열의와 불타는 사랑을 지닌 사람들이었으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횃불이 된 이들이다. 이제 우리가 내심의 불타는 사랑과 열의와 격정으로 인류의 횃불이 되어야 할 차례이다.

◆ 본당 주임 박상대 신부